수행에 있어 참을성은 기본 중의 기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㉝ 인삼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손오공

그림 · 최주현

보살의 시험을 거치고 다시 출발한 길, 언제나 부처님 계신 영취산에 도달할까? 고개를 돌리면 바로 거기인 것을 어찌 수만리 먼 길을 헤매이는고? 꿈속에 십만 리 청산을 헤맸지만 머리맡을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아! 고개 돌리기 정말 힘들어라. 그래도 가야할 꿈속의 길, 험한 고비도 많고 요괴도 많지만 참으로 기이한 경치, 마음을 씻어내는 경개도 많다. 그 가운데 참으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 이름도 좋아라, 만수산(萬壽山)이라네. 훌륭한 곳 길지(吉地)에는 당연히 절이 있지, 이곳에도 도관(道觀)이 있네, 이름하여 오장관(五庄觀). 그곳의 주인은 이름 높은 신선 진원자(鎭元子), 별명은 여세동군(與世同軍)이라네.

그 도관엔 천지간에 오직 이곳에만 있는 명물이 있네. 혼돈(混沌)이 처음 나뉘었을 때부터 뿌리를 내린 신비한 나무, 초환단(草還丹) 또는 인삼과(人參果)라고 불리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 인삼과로 말하면 삼천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삼천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며, 삼천년이 지나야 열매가 익고, 만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열매. 그리고 이만 년에 서른 개의 열매만 열린다네. 모양은 사흘도 안 된 어린아이 모양인데 냄새만 맡아도 삼백육십 년을 살 수 있고 하나 먹으면 사만 칠천 년을 살수 있다네.

마침 진원대선께선 원시천존의 부탁으로 상청천에 올라가 혼원(混元)의 가르침을 베푸는 일정이 잡혀있어 청풍, 명월 두 제자만 남기고 모든 제자 이끌고 가시면서 두 제자한테 신신당부한다.

"전생부터 인연 있던 당나라의 성승이 방문할 테니, 인삼과 두 개만 따서 대접해 드리고 있거라." 두 제자 신선의 당부 받들어 현장법사 일행 극진히 맞아 대접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삼과를 따서 현장법사에게 올리니 현장법사 기겁을 한다.

"아무리 인심이 험악하게 변했다 하더라도 어찌 사흘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먹으려 한단 말이요!" 아무리 귀하디귀한 열매라 하지만 철통같은 현장법사 고집, 속인의 눈에는 선과가 보이지 않는구나!

청풍, 명월 두 제자 탄식하고 '이참에 귀한 과일 우리나 먹자!' 그렇게 수군거리며 먹는 것을 먹을 것 밝히는 저팔계가 들었네. 참을 수가 있나, 살그머니 손오공을 부추긴다.

"형님 형님! 이러쿵 저러쿵~이 도관에 신비한 과일 있다니 우리도 하나씩 맛봅시다."

원래 원숭이가 과일 마다하는 법 있던가? 이 과일 따기가 보통 까다롭고 어렵지 않아, 첫 번째 것은 법을 몰라 땅으로 떨어져 들어가지만 재주 좋은 손오공 지신(地神)을 불러 따는 법 알아내곤 세 개를 몰래 따서 사이좋게 냠냠~

욕심 많은 저팔계, 좀 더 먹겠다고 투덜거리는 바람에 들통이 나고 결국 한바탕 시비가 붙는다.

수양이 좀 얕은 청풍과 명월 좀 과격하게 욕을 해대고 참을성 없는 손오공 심보가 거기에 부딪히니 결국 참극이 벌어지누나.

손오공 술법을 부려 가짜 자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살며시 뒤로 돌아가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넘어뜨리네. 아아! 마음 위의 칼을 갖지 못하고, 마디 옆에 그리고를 기억하지 못한 속된 것들의 분쟁에 천지간의 정기를 모아 열매를 맺던 귀한 나무 덧없이 쓰러졌구나!

나무 쓰러진 것을 어찌 이상한 말로 설명하느냐구? 그건 삼쾌 선생의 해설을 보셔야지!

이번 회에는 어려운 문자가 좀 많이 쓰였지요? 도교와 관계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좀 풀이도 많이 해야 하겠구요.

우선 처음 시작부터 좀 아리송한 이야기를 했죠? 삼쾌선생이 괜히 신비한 척 하는 거 아니냐구 고개를 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물론 삼쾌 선생의 유식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점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보실 것도 아닙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슬쩍 각색한 것뿐이지요.

여행길에 아주 멋진 산천경개를 만납니다. 현장법사가 찬탄을 하지요. 부처님 계신 뇌음사(雷音寺)가 멀지 않은 것 아니냐! 손오공이 웃습니다. 아직도 멀고도 멀어요! 사오정이 묻습니다. 얼마나 먼데요? 십분의 일도 못왔어! 저팔계가 묻습니다. 몇 년이면 도착할까요? 여기에 대한 손오공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두 아우들이라면 열흘 정도? 나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갈 수 있지. 그렇지만 사부님이라면…에휴! 생각도 말아야지."

현장법사가 걱정스러워 다시 물으니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사부님이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수천 번 거듭한다 하더라도 도착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부님이 지성으로 깨달으시고 한마음으로 돌이켜 보신다면, 그곳이 바로 부처님 계신 영취산(靈鷲山)이겠지요."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부처님 계신 곳에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일까요? 부처님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라면, 몇 천 번의 생애라고 한다고 과연 이를 수 있을까 의심스럽죠? 오죽하면 항하사겁(恒河沙劫)의 수행을 통해서야 비로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선가(禪家)에서 흔히 하는 말이지요? 고개 돌려 깨달으니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로구나! 이런 식이지요. 항하사겁과 고개 돌려 깨달음, 이 둘 사이의 너무 큰 차이에 많은 불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유기는 손오공의 입을 빌어 그 두 가지의 차이가 결국 차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더 헷갈린다는 말씀이지요.

진원대선의 인삼과, 현장법사 거절
뒤따라간 손오공과 저팔계가 차지
다툼 속에 인삼과 나무까지 파헤쳐

일단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에 절대적 기준이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무언가에 몰두한 시간은 휘딱 가버리는 것 같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너무도 더디 가는 것 같지요?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라는 말은 알고 계시지요? 일각(一刻)은 15분 정도의 시간이니까 15분이 삼년 같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상대성을 잘 말해주는 성어지요. 그렇게 거창한 비유를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세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의 느낌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런 거지! 길다 짧다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몇 십 년 살아온 그 시간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한 찰나의 생각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각도에서 말해보지요. 우리는 한 평생을 몇 년을 기본단위로 생각하고 살까요? 요즈음은 백년 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00살쯤 살면 많이 오래 살았다 하지 않나요? 그런데 99세쯤 산 분한테, "그만큼 사셨으니 이제 웬만하면 돌아가시지요"한다면 어떨까요? "음, 그래. 이만큼 살았으니 남에게 폐 되기 전에 빨리 가야겠구먼"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이야기를 약간 바꿔볼까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100겁쯤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 사는 거지요? 그 세계의 사람들은 너무 너무 지겨워하지 않을까요? 1겁쯤 살고나서는 지겨워 죽겠다고 투정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세계에선 90겁쯤 살고 죽는 분들이 너무 일찍 죽는다고 애통해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는 것이 삼쾌선생의 생각! 하루살이가 생각이 있다면, 하루를 사람의 한 평생처럼 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구요? 오히려 더더욱 사람 헷갈리는 말만 늘어놓는 거 아니냐구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시라구요.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절대성 부여하지 마시고, 영겁을 수행해야 깨달음에 도달하느냐, 고개 돌리면 바로 거기냐,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으시다구요. 그냥 하세요. 지금 여기! 당신이 계신 이 자리에서 '위로 향하는 한 길' (向上一路) 위에 있는지만 한번 살피시라는 거지요. 현장법사 일행이 경개도 수려한 만수산(萬壽山)이라는 곳에 도착한 대목에 와 있군요. (슬그머니 이야기를 돌리는데 성공한 것인가요?) "이런들 어떠하료 저런들 어떠하료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료…"하고 읊었던 방원의 시조에 나오는 산인가요? 하하! '만년의 목숨'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네요. 우리나라의 명승에는 언제나 절이 있지요. 중국에서는 절 아니면 도관(道觀)이 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도관이란 도교의 절이라고 보면 되니까 결국 명승에는 절이 있는 것이군요. 역시 만수산이라는 명승에는 절이 있고, 그 절의 이름은 오장관(五庄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교의 절이네요. 그 절에는 진원자(鎭元自), 별명은 여세동군(與世同君)이라는 신선이 계시구요. 그런데 이 신선의 이름이 비범하네요. 본원을 누른다는 진원(鎭元), 세상과 함께 하는 존귀한 분이라는 여세동군(與世同君)이라는 이름이군요. 그리고 그분이 전공하시는 분야 또한 독특합니다. 도교의 가장 존귀한 세분 가운데 한분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의 청으로, 그분이 머무시는 상청천(上淸天)에 가셔서 혼원도과(混元道果)를 강설하신다네요. 여기서 혼원(混元)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온통 함께 뒤섞여 있는, 세계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게요. 근본을 진압한다는 칭호도 그와 연관이 있을 것 같구요. 근본에서 흩어지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지요. 통나무가 쪼개져 여러 가지 그릇으로 되듯이요. 그런 쪼개짐으로 나기지 않은 상태, 그 근본을 잘 지키는 도를 말하는 신선, 바로 그분이 진원자이지요. 그러기에 세상과 더불어 있는 분이기도 하구요.

그 분이 머무시는 도관, 그 절에 신비한 나무가 있어요. 이름하여 초환단(草還丹)나무, 별명으로 인삼과(人參果) 나무…. 앞에서 설명했듯이 몇만 년이 지나야 완전히 익는 인삼과라는 신비한 열매를 맺는 나무죠. 냄새만 맡아도 360년을 살고, 한 개 먹으면 47,000년을 산다는 신비한 과실 인삼과! 맛도 정말 좋겠지요?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 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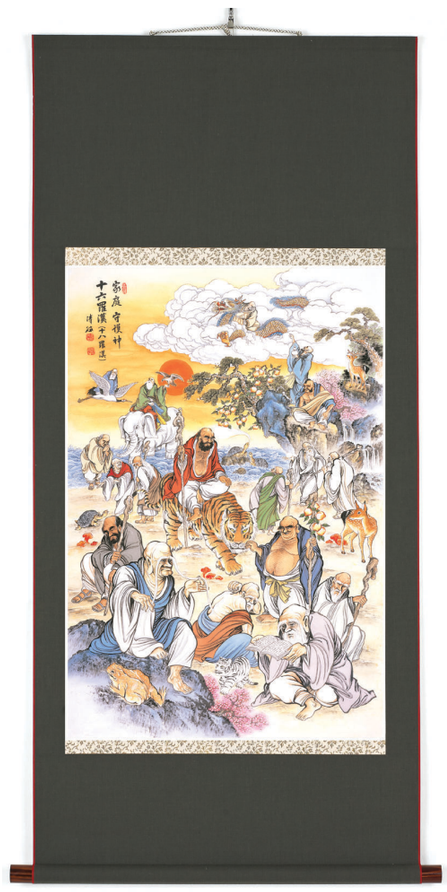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